

어려운 국내시장 잘 나가는 효자車

기아차 K시리즈

K9, 5월 1705대 판매...월간 역대 최다
K7, 월 3천대 꾸준...K5 '스테디셀러'
뉴K3, 5월 전년비 123%·6월 56% ↑

현대차

싼타페 매월 1만대...6월 판매 전년비 2배

한국 GM

볼트EV 올 누적 3122대...전년비 1015% ↑



'기아차 올 뉴K3'

기아차의 K 시리즈나 현대차의 싼타페, 한국GM의 볼트 EV 등은 침체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면서 판매가 늘고 있는 차량들로 꼽힌다. 수입차들의 거센 공세에도 꿋꿋이 버티내며 국내 운전자 공략에 성공한 차량들이라는 점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복덩이'나 다름없다.

2월 기아차에 따르면 올 들어 6개월간 K3를 비롯한 K5, K7, K9 등 K 시리즈 4종의 국내 판매량은 7만1343대로, 작년 같은 기간 판매량(6만324대)을 넘어섰다.

수입차 공세에 고전하면서도 기아차의 올 1~6월 누적 국내 판매대수(26만7700대)가 4.6% 늘어난 데는 기아차의 간판 세단 브랜드인 'K 시리즈'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게 한몫을 했다.

'올 뉴 K3'의 경우 지난 2012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것으로, 기존 모델보다 차체가 커진데다, 경차급에 해당하는 15.2km/l (15인치 타이어 기준)의 연비를 인증받으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K3는 5월에만 5024대가 팔려 작년 5월(2254대)보다 122.9%가 늘었고 올 5월까지 2만 605대가

판매돼 전년도 같은 기간(1만1448대)에 견줘 판매량이 80% 증가했다. K3는 6월에도 4074대가 팔려 1년 전(2612대)보다 56.0%가 늘었다.

K9도 비슷하다. '더 K9'은 기아차가 지난 4

월 출시한 플래그십(대표) 세단으로, 경쟁차로 수입 고급 대형세단을 내세울 만큼 첨단 주행 신기술과 지능형 편의사양, 편안함을 자랑한다.

소비자 선호도도 1세대 K9 출시 첫해인 2012년보다 높아 5월에만 1705대(일부 구형 모델 포함)가 판매돼 역대 최다 월간판매(기존 2012년 6월 1703대) 기록을 달성했다.

올 들어 판매된 차량도 5월까지 3140대에 이르며 지난해 1년 동안 기아차가 판매한 K9 누적판매량(1553대)의 2배를 넘어섰다.

여기에 '스테디셀러' 급인 K5도 올 6월까지 2만3164대가 판매돼 작년 같은 기간(1만9329대)보다 판매량이 19.8% 늘었다. 6월 한 달동안 판매량도 3723대로, 5월(3613대)보다 3.0% 증가했다.

준대형 세단인 K7도 매월 3000대 안팎으로 꾸준히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차에서는 단연 싼타페가 압도적이다. 6년만에 새롭



GM '볼트 EV'

게 선보인 4세대 신형 싼타페는 3월부터 매월 1만대가 넘게 팔려나가고 있다.

5월까지 4만2679대 판매돼 전년 동기(2만2960대) 대비 85.9%가 늘었고 6월에도 9074대가 팔려 1년 전(4443대)보다 104.2%가 증가했다.

한국GM의 효자 차종은 전기차 볼트다.

볼트 EV는 한국GM이 국내 완성차 업체 중 내수 판매 폭을 기록하는 등 힘든 상황에서도 5월에만 1014대가 팔린 데 이어 6월에는 1621대가 팔려 1년 전(39대)보다 4056.4%가 뛰었다. 올들어 6월까지 판매된 차량도 3122대로 전년도 같은 기간(280대)에 견줘 1015.0%가 급증하는 등 전기차 인기를 이끌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연간 생산비 10% 증가...고용 감축·투자 차질 불가피

현대기아차 美 고율 관세 부과시 어떻게 되나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현대차의 미국 공장 생산비용이 연간 약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되면 현대차는 수익성이 악화하고 차량 판매 감소로 미국 내 현대차 관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세 부과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다.

2일 현대차가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사의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대차는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 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차 차량의 절반 가까이가 현지에서 만들어지는데, 생산비용이 늘면 차량 가격이 인상되고 결국 판매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장 생산직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835개 대리점에서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 현대차가 협력사와 함께 직접 고용한 인력

은 2만5000명이며, 대리점을 통해 간접 고용한 인력은 4만 7000명이다.

현대차는 미국 내 사업이 어려워지면 현지에서 진행하려던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대차는 협력사와 함께 2021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 수십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미국에 83억달러를 투자했으며, 지난 5월에는 앨라배마 공장의 엔진헤드 제조설비 증설 등을 위해 3억8800만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아차도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기아차는 수입 자동차부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조지아 공장의 생산비용이 연간 10%가량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 악화와 판매 감소, 고용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3분의 1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미국 내 협력사와 함께 직접 고용한 인력은 2만5000명, 775개 대리점을 통해 간접 고용한 인력은 3만 8000명이다. 또 지금까지 미국에 77억달러를 투자했고 앞으로 수십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서 "수입차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이 계획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세계 12개社 제조업聯 "일자리 감소·보복 관세 우려"

타 수입차들도 고율관세 반대

미국 자동차 업체와 주요 경제단체도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에 반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미 관세 부과로 가닥이 잡힌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도요타, BMW, GM, 현대·기아차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차 관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도요타 미국법인은 대부분 미국 시민인 3만7000명의 자사 근로자와 미국 내 협력사에 고용된 26만7000명, 도요타와 렉서스 딜러십에서 일하는 10만명을 대변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캔터키주에서 생산하는 캠리 승용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30%를 수입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면 캠리 가격이 1800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MW는 독일,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등 자동차 수출국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원칙과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게 바람

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BMW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장에서 3만628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70% 이상(2017년 27만2346대)을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수출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자동차, 혼다, 닛산, 도요타 등을 대표하는 세계 자동차제조업협회는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수입이 아니라 232조 관세 부과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GM, 포드, 메르세데스벤츠, 폴크스바겐 등 12개사가 가입한 자동차제조업연맹도 25%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차 한 대당 소비자 부담이 평균 5800달러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또 자동차 생산 감소로 1~3년 동안 19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고 다른 국가들이 보복에 나서면 일자리 감소가 62만 4000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최대 자동차 업체인 GM도 관세가 비용 증가와 판매 감소, 경쟁력 약화, 다른 국가의 보복 관세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번 232조 조사가 3~4주 이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19~20일에 열리는 상무부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Aror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 의명가

KCPBA 2016

2011

2011

2011

2011

2011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속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코네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